

2026
완성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2 | 태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덥다.(열악한 감옥 상황 – 무더운 날씨)

몇 도인지 백십 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감옥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함.)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맞히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 안을 무르녹인다.

다섯 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열악한 감옥 상황 – 비좁은 감옥)에, 처음에는 스무 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에 스물여덟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서른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마흔한 사람이 된 때에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고통스럽고 열악한 감옥 상황) 혀를 채였다.

곧 천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 없이 더위를 보낸다.(계절적 배경: 여름)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 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앓아 있던 나(주인공, 서술자)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지옥(감옥 안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이었다. 빽빽이 앓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시체: 감옥 안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앓아 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짓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흘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다.(감옥 안의 사람들의 외양을 묘사함. 열악한 환경과 비참한 처지가 강조됨.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두 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곤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쓴다.(고통스럽고 열악한 감옥 상황에 대한 ‘나’의 느낌)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 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런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감옥 안의 사람들에 대한 추측)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들킬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이상적인 가치)도 없다.]([]: 그러한 이상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 받고 학대 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현실적인 소망: 냉수. 생존을 위한 바람. 감옥 안의 사람들의 생존 본능을 나타냄.)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극한 상황 속 인간 존엄성의 상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공판 갈 날(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지만,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온다.

“판결은 어찌 되었소?”

영감(공판을 받는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2026
완성

2026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2 | 태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덥다.

몇 도인지 백십 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맞히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 안을 무르녹인다.

다섯 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스무 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에 스물여덟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서른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마흔한 사람이 된 때에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였다.

곧 체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 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 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앓아 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지옥이었다.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앓아 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짓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두 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곤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쓴다.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 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런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 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공판 갈 날을 기다리지만,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온다.

“판결은 어찌 되었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笞刑) 구십 도랍니다.”

“거 잘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두 먹구, 바람두 쏘이구…… 난 언제나…….”

“여보! 잘돼시오? 무어이 잘된단 말이오? 나이 칠십 줄에 들어서서 태 맞으면 – 말하기 두 쉽소. 난 아직 죽긴 싫어! 공소했쉐다!”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의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다.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단구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이 방 사십여 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 있으면 무얼 해? 여보!”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였다.

“여게 태형 언도를 공소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깔깔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쫓아라. 여러 가

지의 편이 일어났다.

①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대동강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해야지!”

[A] 영감은 또 먹먹하였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노형 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녕코 다 죽었잖아.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무얼 하겠소? 취하게 해 주소.”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뜻)을 말하매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 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에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 김동인, 「태형」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성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송충이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송충이를 보면 소름이 오싹 끼치지만, 고기잡이는 뱀장어를 손으로 주무르고, 여자는 누에를 손으로 만진다. 이득이 생기기만 하면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또 수레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모두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 기다린다. 수레 만드는 사람이 더 착하고 관 만드는 사람이 더 악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종사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다.

— 한비자

- ①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서 타락한다.
- ②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인간은 타고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 ④ 인간은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중시한다.
- ⑤ 인간은 누구나 공포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3. [A]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썼다고 할 때, <보기>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감은 힘없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당장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비좁은 돼지우리에서 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나의 말투는 거칠어졌다. 영감은 잠시 화석이 돼서 입을 다물더니 얼마 후 체념한 표정으로 다시 나를 찾아 공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나는 영감이 마음을 바꿀까 봐 얼른 아들 둘이 죽은 마당에 당신 혼자 살아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는 말을 던져 뜻을 박았다. 내가 간수를 부른다고 하자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는데, 안색이 몹시 창백했다. 그러나 나는 자리가 좀 넓어진다는 생각에 오히려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 ① 대화를 직접적 서술로 바꾸어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할 수 있다.
- ②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③ 일부의 발화는 주체를 바꾸어 인물의 의도를 부각할 수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 할 수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 완화를 통해 분위기를 이완할 수 있다.

4. ①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승자박(自繩自縛)
- ② 토사구팽(兎死狗烹)
- ③ 진퇴유곡(進退維谷)
- ④ 좌충우돌(左衝右突)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5. ‘나’에 대한 인물평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굴하며 자존심이 없는 인물
- ②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물
- ③ 과거의 추억에 얹매인 채 사는 퇴행적 인물
- ④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의지적 인물
- ⑤ 매사에 소극적이며 자신감이 없는 우유부단한 인물

6. 노인이 ‘나’와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어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열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 내게 바이 갈 길을 하나 없소.
- ② 뉘라셔 ㅋ마귀를 검고 흉(凶)튼 ㅎ닷던고 /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괴 아니 아름다온가 / 스람이 더 싫만도 못함을 못느니 슬허 ㅎ노라.
- ③ 내히 죠타 ㅎ고 ńm 슬흔 일 ㅎ지 말며 / ńm이 honda ㅎ고 의(義) 안이여든 쪳지 말니 / 우리는 천성(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 ㅎ리라
- ④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⑤ 아아, 강물이 웃는다, 웃는다. 괴상한 웃음이다. 차디찬 강물이 껌껌한 하늘을 보고 웃는 웃음이다. 아아, 배가 올라온다. 바람이 불 적마다 슬프게 슬프게 삐걱거리는 배가 오른다…,

7.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작품 외부의 화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전개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의 독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 ④ 작중 인물이 외부 세계와 내부 심리를 모두 서술 한다.
- ⑤ 문장에 수식을 가하여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건을 완만히 이끌어 간다.

8.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인간은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 ② 인간은 비정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악마이다.
- ③ 인간은 시련을 극복할 때 그 존재 가치를 느낀다.
- ④ 인간은 개인보다 전체를 앞세우는 사회적 존재이다.
- 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나약한 존재이다.

【9~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덥다.

몇 도인지 백십 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 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맞히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 안을 무르녹인다.

다섯 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스무 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에 스물여덟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서른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마흔한 사

람이 된 때에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였다.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 없이 더 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 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앓아 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지옥이었다.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앓아 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짓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흘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두 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곤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쏈다.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 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런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먹이지 않으면 굶어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⑦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공판 갈 날을 기다리지만,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온다.

“판결은 어찌 되었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이 소설은 ‘나’라는 인물이 감옥 안에서 직접 겪고 느끼는 일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 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을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중심인물 ‘나’의 성격은 그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 요약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④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비참하고 절망적일 뿐 서정적이지 않으므로 회상을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인물들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감옥의 열악한 상황과 인물들의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학적이지 않다.

2. 정답 ②

윗글의 ‘나’와 감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간이 조금 넓어진다는 이익을 위해, 태형을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노인의 처지를 외면하고 그를 비난하며 공소 취하를 강요한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준다. <보기>의 한 비자는 수레 기술자와 관 기술자의 예를 통해, 인간은 선악의 문제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설명한다. 두 글 모두 인간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 ① <보기>는 한계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기심을 다루므로 ‘한계 상황 속에서 타락한다’는 설명은 윗글에만 주로 해당한다.
- ③ 두 글 모두 운명보다는 인간의 본성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을 다루고 있다.
- ④ 두 글 모두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윗글의 노인은 공포를 느끼지만, <보기>의 내용은 공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두 글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이기심이다.

3. 정답 ⑤

<보기>는 [A]의 대화 내용을 서술로 바꾸면서 ‘나’의 폭력적인 내면을 ‘으름장을 놓았다’, ‘못을 박았다’,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등으로 훨씬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나’와 영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비정함과 이기심을 부각하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따라서 갈등을 완화하여 분위기를 이완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A]의 간결한 대화가 <보기>에서는 ‘힘없이 가라앉은 목소리’, ‘안색이 몹시 창백했다’ 등 세밀한 서술로 바뀌었다.
- ② <보기>는 ‘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등 [A]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는다.
- ③ [A]에서 노인이 체념하며 스스로 언급한 ‘아들이 죽은 사실’을, <보기>에서는 ‘나’가 노인의 의지를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말로 주체를 바꾸어 ‘나’의 잔인한 의도를 부각했다.
- ④ ‘돼지우리’, ‘화석’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감옥의 열악한 상황과 인물의 경직된 모습을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4. 정답 ③

‘진퇴유곡(進退維谷)’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⑦의 노인은 다른 수감자들의 비난 속에서 공소를 취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태형을 받거나, 공소를 유지하고 비좁고 꼼찍한 감옥에서 동료들의 원망을 계속 받거나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린 상황이므로 ‘진퇴유곡’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스스로가 묶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 ② 토사구팽(兎死狗烹)은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다.
- ④ 좌충우돌(左衝右突)은 이리저리 마구 부딪치며 나아간다는 뜻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침묵하는 노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⑤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5. [정답] ②

‘나’는 태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에게 “거 잘됐구려!”라고 말하며, 노인이 나가면 “자리가 넓어진다”는 이유로 공소 취하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한다. 이는 타인의 고통이나 생명보다 자신의 작은 편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극도의 이기심을 보여준다.

① ‘나’는 노인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비굴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나’는 과거에 얹매이기보다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에 충실하다.

④ ‘나’의 의지는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쟁기려는 이기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긍정적인 의미의 ‘의지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

⑤ ‘나’는 노인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므로 소극적이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다.

6. [정답] ③

‘나’를 포함한 감옥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인이 들려주기에 적절한 것은 ‘의(義)에 따라 천성(天性)을 지키며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③이다.

① 갈 길이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과 비애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불효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파초에 대한 동정과 희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⑤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을 담고 있다.

7. [정답] ④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다. ‘나’는 ‘외부 세계’의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부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① 화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이므로 작품 외부의 화자라는 설명은 틀렸다.

② ‘나’의 내면 서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건은 인물 간의 대화와 갈등을 통해 주로 전개되므로 독백이 사건 전개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의 이기적인 시각을 통해 사건이 서술되므로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⑤ 문체가 간결하고 힘이 있으며, 사건 전개 또한 긴박하고 빠르다. 수식을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건을 완만하게 이끌어 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8. [정답] ①

이 작품은 ‘지옥’과 같은 감옥의 극한 환경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독립, 자유, 가족애와 같은 가치를 생각하던 사람들도 극심한 더위와 목마름, 비좁은 공간이라는 환경에 놓이자 오직 ‘냉수 한 모금’과 ‘조금 더 넓은 자리’라는 생존과 직결된 욕구만 남게 된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이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쉽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인간관을 드러낸다.

② 인간이 본래부터 악마적이라는 단정보다는, 극한 환경이 인간을 비정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③ 인물들은 시련을 숭고하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비인간적으로 변모하며 타인을 희생시킨다.

④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다른 구성원(노인)을 희생시키므로, 전체를 앞세우는 모습과는 정반대이다.

⑤ 노인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작품 전체의 핵심은 그 공포를 이용하는 다른 인물들의 이기심과 그 원인이 되는 ‘환경’에 있다.

9. [정답] ②

[A]에서 ‘나’는 노인의 태형 소식을 듣고 “거 잘됐구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노인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리가 넓어질 것이라는 이기적인 기대감에서 나온 반응이지, 결코 노인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노인은 “나이 칠십 줄”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죄수 신분이므로 70대 노인의 죄수복 분장을 적절하다.